

유년기의 끝

이 ‘유년기의 끝’이라는 제목은 1953년 출간된, 인류의 진화와 종의 종말을 다룬 아서 클라크의 SF소설에서 따왔습니다만, 사실 소설과 이 글의 제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통해 어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빌려 온 제목입니다. 저는 올해 5월 18일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좀 지난 신랑이지요. 결혼 후에 변주승 교수님과 임숙정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사람이 변했다.’, ‘인상이 좋아졌다.’ 등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결혼하고 좀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했기 때문에 결혼한 건지, 결혼해서 변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더군요. 고민의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변화했고 성장한 덕분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또래는 아마 반만년의 역사상 처음 출현한 만혼(晩婚)세대일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선배들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취직할 수 있었고, 남자의 경우 27-8세, 여자의 경우엔 26세 이전에 다들 돈 모아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게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삶에 대해 한창 예민한 고3이던 시절 갑작스럽게 찾아온 IMF 사태가 그런 삶을 깨뜨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주창하며 도입한 신자유주의는 IMF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일상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더욱 팍팍해진 어른들의 삶과, 가정과 일상이 깨져나갈 때의 고통을 지켜본 경험은, 저희 세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험난하고 비정한 세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IMF 사태와 신자유주의가 ‘무한경쟁’이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으니까요. 이 팍팍한 삶에서 버텨내기 위해 우리는 ‘강한 척’, ‘잘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꾸며지고 만들어진 가면인 ‘페르소나’가 더욱 강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뭘 원하는지 잘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문화는 함께 놀기 위주로 변하고, 기념일에 서로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럼에도 오래 만나다 보면

결국 페르소나가 벗겨지는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들은 꾸며지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관계를 깨 버리고 맙니다. 설령 어찌어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페르소나가 벗겨진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IMF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해 더 강해진 페르소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세대를 더 늦게 결혼하게 하거나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닦하고, 회피하고,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취미에 몰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인 ‘키덜트(kidult)’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만난 게 지금의 아내입니다. 3년 전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다가, 지난 겨울에 만난 아내는 그 동안 더 성장하여,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덕분에 짧은 연애 시절이었지만, 페르소나에 가려져 있던 저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풁이나마 제가 뭘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도 아직 공부중인 사위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도 많이 치유되었고, ‘이런 사람과 함께 라면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을 했고, 본의 아니게 길어진 ‘유년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변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변화를 위한 노력이 쌓여 왔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제가 바뀌었다고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결혼해서 바뀐 게 아니라, 변했기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디 시대와 세상이 준 트라우마와 페르소나에 자기도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작은 이정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마침표를 찍습니다.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연구원

문 경 득

| 연구원 소식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독도사업 강의 일정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 독도 강의를 신청한 전라북도 내 중·고등학교 및 강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의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임숙정(전주대학교 강사), 송정현(한국고전문학연구원 연구원) 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번	학교명	날 짜	인 원
1	군산 중앙고등학교	05. 28(수)	30명
2	군산 나포중학교	06. 03(화)	29명
3	고창 영선고등학교	06. 16(월)	93명
4	익산고등학교	06. 18(수)	220명
5	전주 신흥고등학교	06. 19(목)	20명
6	군산 제일고등학교	06. 20(금)	42명
7	전주고등학교	06. 20(금)	35명
8	정읍 태인고등학교	06. 25(수)	234명
9	군산 남고등학교	07. 16(수)	160명
10	김제 봉남중학교	07. 16(수)	41명
11	진안 제일고등학교	07. 17(목)	105명
12	장수고등학교	09. 05(금)	90명
13	완주 삼우중학교	09. 05(금)	160명



2014년 6차 운영위원회 개최 (6.20)

운영위원회가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명수, 최우영, 김건우, 하태진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2014년 회원의 날 행사 관련 안건 검토 및 정기후원회원 배가운동에 대한 진행 점검을 하였습니다.

7차 운영위원회는 7월 23일(수)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 현장 점검 (6.13)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기 사업계획안 진행 상태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하였습니다.



『문곡집』 출판

조선시대 문신인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시문집인 『문곡집』 전6책 중 4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한국고전문학연구원이 진행하는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중 『존재집』(전6책) 이후 두 번째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큼니다. 17세기 정치, 사회,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번역서가 될 것입니다.

번역에 애쓰신 유영봉, 김건우, 오항녕, 서종태, 채현경, 이주형 역자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4년 12월엔 『문곡집』 교감·표점본(2책)과 2015년 4월, 『문곡집』 『노봉집(老峯集)』 번역본(4책) 및 교감·표점본(2책) 이 추가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2014년 회원의 날 안내

2014년 회원의 날이 오는 8월 30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장소는 전주 한옥마을의 동락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2014년입니다. 회원의 날이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 8월호에 신도록 하겠습니다.